



정교회 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사순절 제1주일 (정교 주일)

성 니키포로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이장)
(제5조 + 조과 복음 5)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제5조 부활 찬양송 ----- 82
- 정교주일 찬양송 ----- 223
- 성당 찬양송
- 사순절 시기송 ----- 223
- 사도경 : 히브리 11,24~26; 32~40
p223, 봉독서 445
- 복음경 : 요한 1,43~51 ----- 137
- 성모송 ----- 62
- 정교주일 성상 행렬 ----- 224

바른 믿음의 승리

787년의 제7차 세계 공의회는 120년 동안 계속되던 성상 논쟁에 대해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교부들은 성령의 인도로 성상 공경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교회와 가정에 성상을 비치하고 공경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공의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상 배척과 논쟁은 계속되었다.

842년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이었던 2월 19일은 바른 믿음이 완전하게 승리한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 그날 공의회(842 Σύνοδος)는 성상 배척자들을 추방하고, 메토디오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비롯하여 성직자들과 수도자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성 테오도라 황후와 어린 미카엘 황제와 함께 성상을 받들고 기쁨에 넘쳐 행렬하였으며(위 성화 참조),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전도자의 모범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오 늘 복음경 말씀에서 필립보는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필립보는 예수님을 만나 뵈고 그가 구세주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바로 나타나엘에게 가서 율법서와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구세주를 만나보았으니 “와서 보라.” 고 권하였다.

우리는 필립보가 보여준 전도자의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다면 진심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한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등 마음 바르게 살고자 열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느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방탕한 삶을 살며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은 그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기회만 되면 벗어나고자 갈망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나타나엘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립보와 같은 전도자가 필요하다.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당신도 와서 그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혼의 평화와 기쁨,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오는 행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타나엘과 같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소?” 그러면 우리는 필립보가 그랬듯이 “와서 보시오.” 하며 그들을 성당으로 이끌어야 한다. 우리가 정교인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정교회의 참된 가르침을 그들도 보고 듣고 구원의 길로 가려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것이다.

특히 성당은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례는 받았지만 예수님과 친교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기도도 하지 않고 성당은 아주 드물게 나가며 성서도 읽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설교도 듣기 싫어하며 죄를 짓고 살면서도 고백 성사를 하지 않으며, 성체 성혈도 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분들에게도 복음의 빛을 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인도해 주어야 한다.

Q&A

아타나시아 봉사자



한 주일의 하루하루는 저마다 무엇인가를 기념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1.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부활절이 한 해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주일은 한 주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알려진 최고의 승리, 곧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2. 월요일은 가브리엘, 미카엘 등의 대천사들과 헤루빔, 세라핌 등 천상에 있는 수많은 무리의 천사들에게 봉헌됩니다.

3. 화요일은 구약의 예언자들 가운데 마지막 예언자이며, 성모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성인이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마태오 11:11)인 세례자 요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4. 수요일은 성모님과 그리스도의 수난을 위해 봉헌됩니다. 이날 열두 제자 중 하

나인 가리옷 사람 유다가 스승 예수를 배반한 까닭에 금식을 합니다.

5. 목요일은 사도들과 모든 교부들을 기념하며 봉헌합니다.

6.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억하며 또한 금식을 지킵니다.

7. 토요일은 거룩한 순교자들과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신자들에게 봉헌합니다. 이날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라자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요한 11:38-44 참조). 이날은 또한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일을 멈추시고 무덤 안에 죽은 채로 누워 계시면서 ‘죽음으로 죽음을 무너뜨린’ 날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죽은 이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기에 적절한 날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예배 안내

- * 화, 수, 목 오후 5시
석후대과
- * 3월 16일 (수) 오전 9시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 3월 18일 (금) 오후 6시
성모기립찬양 (2 스타시스)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전 9시



소 식

■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식 참여 및 모금

3월 4일(금)에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좌 대성당 프란시스코홀에서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회’가 NCCK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께서 “전쟁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해주셨고,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와 로만 카브착 학생이 전쟁 반대와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NCCK에서는 특히, 우크라이나 여성, 어린이, 난민을 돕기 위한 기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총대주교청에서 진행하는 우크라이나 희생자들을 위한 모금 캠페인에 우리 한국 정교회도 동참합니다. 각 지역성당에서 모금액을 3월 말까지 대교구로 보내주시면 우크라이나 정교회로 보낼 예정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사순절과 관련된 모든 전례 규칙들 중에서 특별히 사순절을 이해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정교 신앙에 고유한 것으로서 정교회의 전례 전통에 입문하는 열쇠와 같은 것이다. 이 규칙은 바로 거룩한 성찬예배가 사순절의 평일에는 절대 거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례 규칙은 이 점에 있어서 명확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순절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거룩한 성찬예배를 절대 거행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성모 희보 축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성찬 교제를 위한 예식이 저녁에 거행되도록 지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예식을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왜 금식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를 통해서 성체성혈을 받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성찬이 우리 자신의 영적인 분투들을 지탱해주는 원천과 힘이라는 것에서 찾아진다. 거룩한 성찬 교제는 우리의 모든 노력들의 귀착점 이요, 우리가 도달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목표요, 그리스도교적인 삶의 최고 기쁨이지만, 그것은 또한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의 영적 분투의 원천이요 시발점이며, 하느님 나라의 '광명의 날'에 누리게 될 보다 완전한 교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열망하게 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하느님의 선물(은총)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대 사순절' 중에서 [정교회 출판사]